

연중 제12주일

기도서 377 편

- 제1독서 : 즈 가 12, 10-11
- 제2독서 : 갈 라 3, 26-29
- 복 음 : 루 가 9, 18-24

숲정이

발행처 :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 홍보국
 인쇄 : 판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예언자의 고통을

안철문 신부

고대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던 전성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으로는 하느님께 대한 소홀과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고, 사회적으로는 부정 부패를 일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릇된 길로 빠지고 있었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당장 버리지는 않으시고 오랜 기간을 두고서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경고하고, 책망하여, 일깨워주셨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그들에게 개선하려는 빛이 보이지 않자 하느님은 마침내 당신의 보호를 거두시어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운명의 쓴 맛을 보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바빌론 유배가 바로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책벌이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삼아 오늘의 우리를 반성해 보건대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숫자가 수십억에 달하지만 우리 사회는 더욱더 불신과 미움, 권력 남용과 부정 부패 나아가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근로자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루가 9, 22)”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루가 9, 20)”라고 고백한 제자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하신대로 몸소 행하시어 처참하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느님의 예언직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저야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참 생명을 줄 것이다.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울러 보잘것 없는 이웃들까지 사랑할 때 십자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 보좌신부)



언론의 자유

여로부터 말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無足之言飛千里)”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우주 과학화 시대를 내다 본 말 같다. 발없는 말이 삼시간에 온 지구를 돌고 우주에까지 메아리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은 퀴즈놀이같은 기사로 더듬거리고 있다. 이 탓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가. 어찌서 시시콜콜한 내용들은 이잡듯이 뒤져서 보도를 하고 정치문제만큼은 성역으로 남아야 하는가.

단식·기자회전 등의 이야기들이 이미 유비(流飛)통신을 타고 알만한 사람들에게 알려진지 오래다. 그런 상황에서 구름잡는 퀴즈처럼 문병 기사가 토막으로 쪼갠 단식을 풀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밀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나마 거의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보도가 되니 더욱 의아스럽다. 그러고도 알 권리나 알릴 자유를 말할 수 있는가.

광주사태(광주 대교구 정의평화 위원회는 광주의거라는 표현의 현수막을 내걸음) 3주기 추도 미사에서 하신 윤 대주교님의 강론에 이런 말씀이 있다. —“광주사태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는 것은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새 시대가 열릴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사태로 짓밟혀지고만 민주주의가 소생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언론이 완전히 통제돼 있는 비민주적 현실이 지속되는 한 진실은 밝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 광주사태의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된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또 그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입니다.”(광주 대교구보 「빛고을」 83. 5. 29자).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숲정이 산책



참기 바랍니다

성서 묵상 - 7가지 단계

성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성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혹은 모임에서 성서를 자주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성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서를 읽는 신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만의 현상이 아니며 남아프리카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이들 나라에서는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이 성서를 가깝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7가지 단계는 현재 이 나라들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성서 묵상 방법이다. 어느 모임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성서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일곱 단계

1. 주님을 초대한다.
2. 성서 귀절을 읽는다.
3. 성서 귀절을 다시 바라본다.
 - 설교나 토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나 구절이 무엇인가?
 - 다시 성서 귀절을 읽는다.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한다. (2~5분 동안 침묵)
5. 서로 마음 속에서 들었던 것을 나눈다. (설교나 토론이 되지 않도록)
6. 함께 찾는다.
 -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 어떠한 말씀을 집으로 가져갈 것인가?
7. 함께 기도한다.

제 1 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지도자는 자발적인 한 사람에게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

이 구체적인 초대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살아 계신 분으로 현존하신다는 이 믿음은 성서묵상의 선행 조건이며 기초가 된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것은 인쇄된 말씀이 아니라 육화(肉化)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말씀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들이나 혹은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 18, 20).

제 2 단계 : 성서 귀절을 읽는다. (지도자는 선택한 구절을 알려준다.)

특정한 사람만을 낭독자로 지명하지 말아야 하며 한 사람에게 모임의 분위기가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 단계 : 성서 귀절을 다시 바라본다. (한 번 성서 귀절을 읽은 후 세부적인 어떤 구절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자발적으로 참석자들이 큰소리로 그들에게 인상을 준 단어나 말들을 읽는다. 이렇게 각 사람이 읽은 후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조용히 짧은 구절들을 참석자 스스로가 서너 차례 반복함으로써 말씀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

제 4 단계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한다. (개별적인 말씀들을 숙고한 후 전체 귀절들을 천천히 읽는다.) 지도자는 침묵의 시간을 선언한다. 이때 몇 분 동안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 참석자가 신경을 쓰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들은 침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있도록 권고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신다.

제 5 단계 : 서로 마음 속에서 들었던 것을 나눈다. (침묵의 시간 후에 지도자는 마음속에서 들었던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한다)

서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단계는 인상적이고 영적 체험을 줄 수 있는 단계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모든 인간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두려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분노도, 피곤함도, 배고픔도, 그의 감정도—그분의 하나님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들어 내셨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신앙 안에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된다.

제 6 단계 : 함께 찾는다. (이 시간은 복음의 빛 안에서 생활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 단계에서 일상 생활의 문제들이 토론될 수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성서 귀절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자리에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제 7 단계 : 함께 기도한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도록 인도한다) 성서의 말씀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 매일의 문제들—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위한 양식이 된다. 참석자들이 기도 안에 묵상 가운데 되어진 어떤 것이라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일치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Word Event 잡지에서)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광

전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멘지

도매상

서울주단

☎ ⑤ 0 4 5 3 ⑤ 5 0 9 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우도 KS마크 획득

한 일 씽크

전북 총대리점

- 주방설계
- 씽크대수리
- 가스렌지
- 주방용기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④ 0 8 4 1 야간 ④ 9 8 7 4
박 안 당 (윤규)

□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VIENNA SCHUBERT-DUO 초청 음악회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전주교구 200주년 위원회에서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Vienna Schubert-Duo」인 메조 소프라노 엘리오노레 여사와 테너, 플루트와 오르간 연주자인 게오르크 하우어 교수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비엔나 음악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주회를 가져 절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지게 되는 이번 연주회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때 : 6월 27일(월) 오후 7시 30분

제 1부 미사(미사곡)

제 2부 성음악

장소-전주 중앙성당

입장권-1천원(각 본당 사무실)



□ 한국 성인이 탄생할 날 멀지 않았다.

-복자 103위 시성 거의 확실시 되다

순교복자 103위가 성인품에 오르는 것은 한국 교회의 오랜 염원이었다. 200주년을 기하여 한국 주교단은 복자 103위의 시성을 1983년 3월 24일 교황청에 청원하였고 교황청은 이 청원에 대해 성인품 심사의 관건이 되는 기적심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으로써(1983년 6월 1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운하) 순교 복자 103위의 시성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우리 선조 순교복자들이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자랑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한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순교정신으로 교황 성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 숲정이 두고 모집

숲정이 후보는 바로 교우 여러분의 후보입니다. 숲정이 2편의 반면에는 교우 여러분의 글을 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한: 수시 원고 내용: 신앙 수필, 시, 건의사항, 미담, 건설적인 비판 등

원고량: 200자 원고지 6매나 3매

보낼 곳: 52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기 타: 채택된 원고는 후보에 게재하며 약간의 사례를 할 예정입니다. 단,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치 않음.

인사말씀

금번 뜻하지 않은 본인의 입원 수술 가료중 본 신부를 위하여 주교님 이하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문병과 물질적 도움에 신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병원의 안 과장님과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983년 6월 14일

이 상 호 신부 올림

숲정이(515)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렌타

특수안경, 표시없는 다초점 조절렌즈, 가벼운 렌즈, 얇은 렌즈를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베드로) 종순

남·여 사원모집

감사직: ○명
초대졸 이상

관리직, 경리직: ○명
고졸이상 남·여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주민등본 1통

제출기간: 83년 6월 19일 ~ 6월 25일까지

현대영어 전복지사
☎ ①106 서정수(요안)

홍수품 구입자(신자) 우대

금 동 상 회

신도 금속 대리점.

양은, 스텐, 일절 도산매

전주시 전동 1가 290

☎ ② 1606

김 연 옥(수산나)

칼라 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시설

금번 금성사진 45분 완성 칼라 현상 인화기를 신설하고 83년 5월 23일부터 가동하오니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사이즈는 3×5, 5×7, 8×10등 우량한 사진을 처리

미영칼라현상소

☎ ②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 병 전(토마스모어)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20일 오후 8시, 장소-군산 둔용동 성당.
 2. 200주년 교구 사목회의: 20일 오전 10시, 대상-신부·수녀·평신도 대표 2~5명
 3. 200주년 전주교구 중앙위원회: 20일 오후 5시 (사목회의 후 즉시)
 4. 사목 방문 일정: 21일-노송동, 23일-파티마
 5. 1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19일, 부안성당
 6. 2지구 말씀과 성령 1일 피정: 25일 오후 1시30분, 둔용동 성당
 7. 가정법원(혼인 문제): 27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교구청
- ※ 축! 영명: 성 알로이시오(21일): 이 배주 신부님
성 요한 세자(24일): 김 봉희·왕 수혜·한 기호 신부님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보좌 안 철 문
사도 회장 사도 김 인 철

1. 성전 신축모금 위한 미술전: 기간-22~26일, 센터
2. 200주년 기념 비엔나 슈베르트 2중주의밤: 27일 중앙
3. 성서 피정: 주제-말씀과 성령, 회비-1천원(중석 각자 지참), 28일 오전 9시30분~오후6시, 중앙성당
4. 축! 전입: 김득수 가족·전용순·강의숙
5. 성전 신축 위한 목주기도 1백만단 바치기: 6월 14일 까지 61,500단 봉헌
6. 성전 신축현금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일동·백병선(각 5만원) 문영희(10만원)
<추가> 오영순·천정우(각 10만원), 김순기·김중호(각 5만원), 이기성(30만원), 박상현(50만원), 전채린(6만원), 양봉덕·이완준·이상훈·박경자(각10만원) 문상권(5천원)·이기성(1만원), 장은순(5만원), 이복순(5천원), 안드레아반 예비자 일동(208,500원), 배금순(10만원), 박태진(1만원)
신입계: 184,217,600원 납입 계: 59,900,631원
지난주 봉헌금: 816,991원 교무금: 538,000원
감사헌금: 김정란 5,000원

4. 6월 4일 영세자들 보충교리: 24일 저녁미사 후
5.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화> 오전 10시
6. 빈첸시오의 집: 성물 일체·일용품·품질보증
7. 북자신협 관공교육: 22일 8시 출발
신협연수원·동학사·유성온천, 도시락, 회비 5천원
8.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김성원 ②박상기
차주전례: 해설-이명례
독서-①유베로니카 ②이충원

□ 지난주 봉헌금: 497,200원

(서화동)

전화 02276번

주임 신부 김 병 환
보좌 신부 사도 김 한 형
사도 회장 사도 김 한 형

1. 영세식: 24일 저녁 8시
2.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3. L.M 옥외행사: 26일<일> 마음리 공소
4. 성심부녀회 임원개편: 회장-김유리안나, 총무-이대혜사, 서기-서말라, 회계-김리트리나
5. 사제양성 후원회: 문정숙·김행자·구양혜(42명)
6. 할머니회 성지순례: 28일 9시 행선지-천호공소·여산·나바위, 회비(3천원) 신청은 사무실 선착순
7. 교무금 미납하신 분께서는 납부 바람
8. 차주전례: 독서-①김한기 ②강기호
신자들의 기도-함문권·박화자·박경환

□ 지난주 봉헌금: 270,274원 교무금: 282,000원

(노송동)

신부 09669번
수.사 07032번

주임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나 춘 새
사도 회장 이 흥 재

1.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부녀자 피정: 24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까지
 3.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젊은이들의 모임: 오늘 오후 7시, 교육관에서
참가대상-64년생~59년생까지
 5.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6. 성전 청소담당: 바다의 별Pr-20일 오전 10시까지
 7. 교구 사목방문: 21일, 각 단체장 및 각 구역장들께
서는 참석 요망
 8. 모내기 봉사활동: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 구역장 전체모임: 23일 저녁 8시, 참석하세요
 10. 인후A P T 구역장 명단 다음주 발표
- 지난주 봉헌금: 349,700원 교무금: 243,000원

(술집이)

전화 0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보좌 신부 김 수 곽
사도 회장 사도 김 수 곽

1. 축! 첫영성체: 오늘 공식미사중
2. 성모회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요한회 릴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구역 정부회장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신영세자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12월 24일 영세자, 영세 사진 찾아가세요 수녀님)
6.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①선종현 ②이철수
기도-강원모·송용호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김종환·송용호,
기도-이강노·박영열

□ 지난주 봉헌금: 150,860원 교무금: 400,700원

(덕진)

신부(3)2182
수녀(72)1222

주임 신부 김 봉 희
보좌 신부 정 양 현
사도 회장 사도 양 상 열

1. 릴레회의: 반석회, 청년연합회
 2. 평일 가정 연례미사 참례로 신앙의 보람과 평화로...
새벽미사-월, 수, 목요일 6시, 저녁미사-화, 수, 목, 금, 토 저녁 8시. 어머니미사-금요일 오전 10시
 3. 중고생 교리: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
고등학교-교육관, 중학생-학생회실
 4. 예비자 모집(성탄 영세반) 6월말까지 사무실에 신청
7월초 개강 예정
 5. 할머니 교리: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6. 성전 청소담당 일정: 매월 첫 토요일-학생회, 둘째 토요일-청년연합회, 셋째 토요일-반석회·까리마사 자모회, 넷째 토요일-진부회·성심부녀회, 다섯째 토요일-주일학교
- 지난주 봉헌금: 430,120원 교무금: 481,000원

(전동)

신부 06208

수녀 03222

수녀 08347

주임 신부 김 병 열
보좌 신부 박 찬 길
사도 회장 사도 박 찬 두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피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4. 첫 영성체 교리: 20일부터, 매일 오후 6시~7시까지
사무실에서 신청 바람
5. 월요 기도회: 매주<월> 저녁미사 후
6.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서정우, 독서-①김흥기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승호 ②이승현

□ 지난주 봉헌금: 617,370원 교무금: 605,000원

(파티마)

신부 00915

수녀 04804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황 희 상

1. 축! 첫 영성체: 어제 45명
 2. 교구청 사목방문: 23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행사-①성체조배 ②분당 현황 설명 ③좌담 및
건의사항
참가자-사도회장단, 각부차장, 감사단, 교문단
 3.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25일,
 4. 주일 미사시간 연수 바람
 5. 예비자 안내에 협조: 교리시간에 참여할수 있도록...
- 지난주 봉헌금: 228,580원 교무금: 182,400원

(북자)

전화 05238번

주임 신부 권 영 교
보좌 신부 조 성 호
사도 회장 사도 조 성 호

1.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분당신부님 영명축일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과 부녀
부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3. 영세자 가정방문: 23일<목>